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좌겸(상명대학교)**

장석진(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31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26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지 24부를 제외한 총 23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 우울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언어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중학생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높고 회복탄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언어적 학대를 경험할 때 높은 우울을 보였으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언어적 학대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해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언어적 학대로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보다 적응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중학생,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였음.

** 제1저자: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석사졸업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schang@smu.ac.kr)

1. 서론

청소년기는 제 2의 성장급등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간전상의 중요한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여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되기 쉽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기에는 급격히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남학생의 20.3%와 여학생의 30.3%가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질병관리본부, 2017),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해당 시기의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기의 우울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홍영수, 2010; Wilson & Widom, 2009).

청소년기의 우울은 대체로 역 U자 모양의 발달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ckrama, Conger, & Abraham, 2008). 이처럼, 우울은 아동기부터 나타나지만 사춘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학생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송예리아, 김진영, 2013).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울은 중요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며(이순옥, 김춘경, 2006) 일상생활의 부적응 문제를 일으킨다(우희정, 최정미, 2004).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청소년 자살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권석만, 2013; 김소린, 이은정, 조수현, 이성찬, 이상민, 2014; 정익중, 박재연, 김은경, 2010). 따라서, 청소년기의 우울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정신건강문제로, 청소년기의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및 가족환경을 강조하였는데(김세은, 김사라형선, 2016; 김정란, 2004),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박병금, 2009; 성준모, 2016). 청소년기는 가정보다 학교나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발달적으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시기이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며, 특히 부모-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김미숙, 2014; 김미선, 정현희, 2017; 김정란, 2004; 양기미, 정성경, 2010; 우희정 외, 2004),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최근 ‘급식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언어문화가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SNS를 통해 초·중·고교생 7,5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1.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급식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경일매일신문, 2018). 급식체는 친구들 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문화 다양성 증대 등의 발전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급식체 사용이 집단 따돌림, SNS상

의 사이버 폭력 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성을 나타낸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친구의 뒷담화를 넘어 그들의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 SNS상 욕설 게시, 댓글 달기 등의 범죄 행위를 놀이의 하나로 웃으며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경인매일신문, 2018).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중학생 시기에 비속어에 많이 노출되며 비속어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다고 밝혔다(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1). 또한,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즉, 폭언과 같은 부모의 언어적 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길은배, 2014; 김태경 외, 2011).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언어적 학대는 유아기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영미(2005)는 부모의 거부적, 경멸적, 원망적, 위협적, 적대적 언어가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조무자(2017)는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의 심각성을 알아본 연구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 경험이 평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혜련, 이재연(1994)은 언어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자녀 중 학대의 피해자로 판정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대의 후유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야단, 악담, 욕설 등의 지속적인 경험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우울,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곽영, 2003). 이처럼 선행연구는 “공격적 언어”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조옥자, 현온강, 2005; 하수홍, 장문선, 2013).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17)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유형 중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상으로는 중학생에 해당되는 만 13~15세의 청소년이 전체의 22.5%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 및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서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대 피해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학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학대는 가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가벼운 훈육으로 여겨져, 신체적 학대나 방임보다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언어적 학대 경험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성혜, 1992). 또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만 13~15세에 속하는 중학생 시기에 부모에게 받은 학대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인지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또는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가 대학생 혹은 성인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보고하거나 발달의 저해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시기에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학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정 내에서 생활 속 습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그 심각성이 잘 보고되지 않아 간과되기 쉽지만 중학생시기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적 학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심리적 부적응 정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및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홍은숙, 2006). 이에 더해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낸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세은 외, 2016; 장미경, 2018).

회복탄력성은 1954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회복탄력성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위협요인에 노출이 되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성장한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Werner & Smith, 1982). 회복탄력성의 초기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취약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절대로 타격을 입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고정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외적인 위협과정과 보호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역동적 과정(Rutter, 1987)’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회복탄력성에 대해 종단 연구를 진행했던 Werner 역시 회복탄력성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김주환, 2011; 재인용).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우울과 부적 상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는 증가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된다고 밝혀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로서의 작용과 매개효과로서의 작용 모두를 주장하고 있다(김상희, 2010; 이은희, 손정민, 2011; 이준기, 2011; 최민아, 신우열, 박민아, 김주환, 2009; Benard, 1993).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에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감소시켰고, 또한, 모·자 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한 것으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박민지, 유미숙, 2011;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 빈번히 경험되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회복탄력성이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신체적 학대나 방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못해온 부모의 언어적 학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리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된다면, 부모의 언어적 학대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입증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우울 감소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 경험과 우울,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이 보고하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 경험과 우울 수준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312명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은 질병관리본부(2017)와 아동보호전문기관(2016) 등에서 보고한 청소년 우울과 학대 발생률이 전국에서 최고인 지역이다. 또한 중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연령이며, 실제로 우울로 인한 자살사고 경향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보고되었다(김경미, 김재원, 김지훈, 2012).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BE2018-11). 연구 절차로는 연구 목적, 방법, 문항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기기입방식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312부 중 26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무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24부를 제외한 총 23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14명(48.3%), 여학생은 122(51.7%)이었고, 학년별 인원은 1학년 39명(16.5%), 2학년 138명

(58.5%), 3학년 59명(25%)이었다. 또한 형제 유무는 외동은 42명(17.8%), 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194명(82.2%)이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문항은 고성혜(1992)가 개발한 아동용 언어적 학대 척도를 연진영(1992)이 아동학대 실태를 주제로 작성한 연구에서 수정·보완하고, 김현주(2002)가 5개의 하위요인, 25개의 문항으로 사용한 것을 임소영(2006)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언어적 학대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거부적 언어, 경멸적 언어, 원망적 언어, 위협적 언어, 적대적 언어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1>과 같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임소영, 200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언어적 학대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원망적 언어	1, 2, 3, 4, 5	5	.88
위협적 언어	6, 7	2	.63
경멸적 언어	8, 9, 10, 11, 12, 13	6	.88
거부적 언어	14, 15, 16, 17, 18, 19, 20	7	.92
적대적 언어	21, 22, 23, 24, 25	5	.89
전체		25	.96

나. 우울

중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77)에서 제작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역,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2>와 같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전경구 외, 200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표 2> 우울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우울감정	3, 6, 9, 10, 14, 17, 18	7	.89
긍정적 감정	4*, 8*, 12*, 16*	4	.79
신체 및 행동둔화	1, 2, 5, 7, 11, 13, 20	7	.81
대인관계	15, 19	2	.86
전체		20	.93

다.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Reivich와 Shatté(2003)가 개발한 척도를 김주환(200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타당화하고,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YKRQ-27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회복탄력성 문항은 총 27문항이며, 자기조절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의 3가지 요소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3>과 같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4$ 이며(김세은, 20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로 나타났다.

<표 3> 회복탄력성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신뢰도
통제성	원인분석력	1, 2, 3	.88
	감정통제력	4, 5, 6	
	충동억제력	7, 8, 9*	
긍정성	감사하기	10*, 11, 12*	.89
	생활만족도	13, 14, 15	
	낙관성	16, 17, 18	
사회성	관계성	19*, 20*, 21*	.83
	커뮤니케이션능력	22, 23, 24	
	공감능력	25, 26, 27	
	전체	27	.93

라. 통제변수

형제의 유무가 부모의 언어적 학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이강미, 1999),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며(김혜련 외, 1994; 홍수경, 2003; 이강미, 1999),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우울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 결과(김세은 외, 2016)에 따라 형제의 유무와 성별을 통제변수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각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통해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에 대한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변인들 간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중심화 방법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관측치에서 변인의 평균값을 뺀 값을 사용함으로써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고, 측정값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을 이용해 상호작용항을 만들었으며,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Cohen 외, 2003).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의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한 기초 분석으로 주요변인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 2, 7 이하로 나타나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Finch & West, 1997).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23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언어적 학대	40.16	20.07	1.53	1.84
우울	15.53	11.30	.89	.36
회복탄력성	99.08	16.95	.055	-.41

2.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는 우울과 정적 상관($r = .357, p < .01$)을 나타냈다, 또한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은 부적 상관($r = -.234, p < .01$)을 나타냈고, 우울과 회복탄력성 간에도 부적 상관($r = -.627, p < .01$)을 나타냈다.

<표 5> 부모의 언어적 학대, 우울,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언어적 학대	1		
우울	.357**	1	
회복탄력성	-.234**	-.627**	1

** $p < .01$

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검증하여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절차는 인구 사회학적 자료인 성별과 형제유무는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A)와 회복탄력성(B)을 독립변인으로 추가로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설정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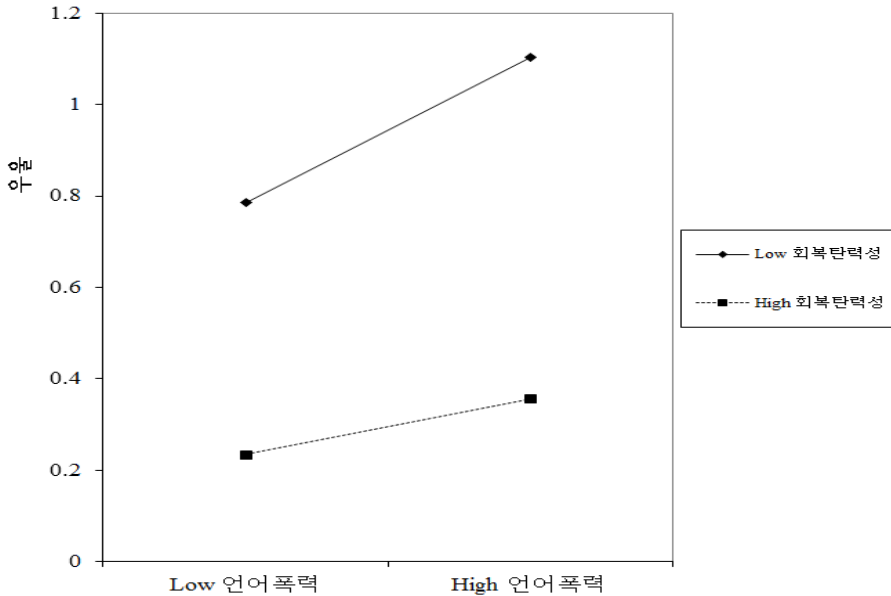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하기 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 1 표준편차 값으로 상하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에 영향력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우울(종속변인)					
	Model I			Model II		
	<i>B</i>	β	<i>t</i>	<i>B</i>	β	<i>t</i>
부모의 언어적 학대(A)	.123	.217	4.131**	.11	.195	3.643**
회복탄력성(B)	-.326	-.577	-11.447**	-.325	-.575	-11.447**
상호작용항 (A×B)				-.049	-.009	-1.977*
효과	R^2	.445		.455		
	ΔR^2	.445		.010		
	<i>F</i>	46.365**		38.341**		

** $p < .01$, * $p < .05$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F = 38.341$ ($p < .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1에서 통제변수인 형제유무와 성별,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언어적 학대($t = 4.131$, $p < .01$)와 회복탄력성($t = -11.447$, $p < .01$)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t = -1.977$, $p < .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2 은 모형1에서 44.5%, 모형 2에서 45.5%로 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의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M+1SD$)에 있는 집단을 상 집단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M-1SD$)에 있는 집단을 하 집단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언어적 학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의 관계에서 완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을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만, 회복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의 경우, 낮은 중학생에 비해 비교적 우울정도가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우울에 대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처럼 자리 잡은 부모의 언어적 학대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독립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 회복탄력성,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의 정적 상관은 부모의 언어적 학대 경험이 많은 중학생일수록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부모로부터 원망적 언어, 위협적 언어, 경멸적 언어, 거부적 언어, 적대적 언어를 많이 경험할수록, 중학생들은 더 높은 우울을 느낀다. 이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안동현 외, 2003; 이영미, 2005).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청소년기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미숙, 2014; 김미선 외, 2017; 김정란, 2004; 양기미 외, 2010; 우희정 외, 2004).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되기 쉬운 중학생이 부모의 학대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과 우울의 유의한 부적상관은 중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기분에 의한 충동적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은 중학생들은, 심리적 부적응의 중요한 지표인 우울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복탄력성이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을 검증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은희 외, 2011; 이준기, 2011; 김상희, 2010; 최민아 외, 2009; Benard, 1993).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중학생은 우울을 느끼게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높은 회복탄력성이 부모의 언어적 학대경험과 우울간의 관계를 완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원망적 언어, 위협적 언어, 경멸적 언어, 거부적 언어, 적대적 언어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을 느끼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기분에 의한 충동적 반응을 적응적으로 통제할수록 우울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의 하위요인인 언어적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험의 우울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안동현 외, 2003; 장정보, 2007; 추소정, 2002;

Thompson 외, 1999; 박희정, 2015)와 회복탄력성이 발달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충격적인 경험, 심각한 역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Werner 외, 1982; 박재연, 2010; 안소정 외, 2013; 이은희 외, 2011; Benar, 1993)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학생들은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 및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밝혔다는 점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여 우울을 호소하는 중학생 집단에 대해 심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상담할 때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과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중학생일지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은 개인의 내적·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성장하는 능력을 통해 우울이 유의하게 낮아진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회복탄력성이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인 언어적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상담 현장,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리고 긍정적 부모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학생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지역에 거주 중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전체 중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중학생들의 자기 보고 형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부에게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에게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나, 부모와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적 학대 경험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또한,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언어적 표현 속에 있는 내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장문선 외, 2003),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왜곡하여 인지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누구로부터, 어떤 언어적 학대를 경험했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험을 확인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인매일신문 (2018). [기고] 청소년들의‘급식체’사용 실태.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길은배 (2014). 청소년의 비속어, 은어 사용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언어 일탈, 통과 의례적 문화인가? -. **청소년학연구**, 21(2), 469-489.
- 김미선, 정현희 (2017).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 167-194.
- 김미숙 (2014).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2010).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은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은, 김사라형선 (2016).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2), 239-256.
- 김소린, 이은정, 조수현, 이성찬, 이상민 (2014). 심리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자존감, 우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3), 1049-1065.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 하우스.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1).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회언어학**, 19(1), 23-58.
- 김현주 (2002).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 이재연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5(1), 91-108.
- 박민지, 유미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29-42.
- 박병금 (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 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지**, 31, 207-235.
- 박희정 (2015). 정서적 학대 경험과 우울증상의 관계: 낮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대

- 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성준모 (2016).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4), 93-111.
- 송예리아, 김진영 (2013). 경제적 곤란 및 부모와의 소통과 청소년기 우울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0(5), 131-155.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1), 109-135.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 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곽영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양기미, 정성경 (2010).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우울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8, 343-368.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총서 91-13, 5-124.
- 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91-200.
- 이강미 (1999). 아동의 신체, 언어적 학대에 관한 연구: 충주시 중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옥, 김춘경 (2006).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4(10), 101-108.
- 이영미 (2005). 학대 경험이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손정민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 -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2), 149-171.
- 이준기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소영 (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2018).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통합인문학연구** 10(1), 193-217.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 조무자 (2017). 대학생들의 아동기 언어적 학대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 두려움을 매개로.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옥자, 현온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4.
- 질병관리본부 (2017).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최민아, 신우열, 박민아, 김주환 (2009).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3(1), 199-220.
- 추소정 (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홍수경 (200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 (2010).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자기존중감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64-81.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4.
- Benard, B. (1993).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1(3), 44-48.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3), 316-331.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 Graw-Hill*, c1982, 209-217.
- Wickrama, K. A. S., Conger, R. D., & Abraham, W. T. (2008). Early family adversity, youth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young adult socioeconomic attainment: Alaten trajectory class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3, 161-192.

- Wilson, H. W., & Widom, C. S. (2009).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illicit drug use in middle adulthood: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fou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3), 340-354.

논문 접수: 2018년 10월 31일

논문 심사: 2018년 12월 21일

게재 승인: 2019년 1월 9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erbal Abus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Kim, Jwa Gyeom(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ji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on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erbal abus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province from April 2nd, 2018 to May 4th, and 236 survey resul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unreliable 24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were analyzed,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to test a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verbal abus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is shown in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erbal abuse and resilience and in a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That is, students with more experiences of parental verbal abuse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lower levels of resilience. Second, resilience works as a moderator in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erbal abuse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resilience show higher depression when they experience verbal abuse from their parents; on the other hand, parental verbal abuse does not increase degree of depression of students with higher level of resilience. This study show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erbal abus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 will provide fundamental material in therapeutic intervention that helps adolescents who experience depression from parental verbal abuse to live more adaptable life.

★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verbal abuse, depression, resilience